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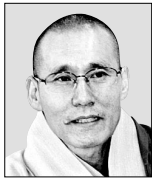
해명양로원 말복 대중공양
현성 (사)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스님은 8월 12일 말복을 맞아 해명양로원 어르신들에게 갈비찜과 떡, 막걸리 등을 대중공양했다.



제4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정법 평창 월정사 주지 스님은 9월 6일까지 제46기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행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남·녀 50명이다.



한가위 합동다례제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9월 27일 '한가위 합동다례제'를 봉행한다. (02)768-8600



제9기 불교영아강좌 수강생 모집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7일~12월 23일 진행되는 '제9기 불교영아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02)3218-4800



스카우트불교연맹 지도자과정
송목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연맹장 스님은 10월 9~11일 양산 신흥사에서 어린이·청소년 지도자훈련 초·중급 과정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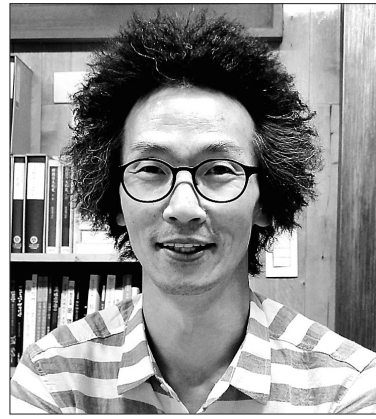
“윤회 벗어나는 과정 茶毘로 표현”

(대비)

제1회 불교무용대전 대상 수상 이화석 교수

전북대 이화석 교수(예술대 무용학과)가 올해 처음 개최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에서 대상을 수상(조계종 총무원장상)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0팀이 한 달여간 경연을 벌였으며 이 교수가 이끄는 '댄스컴퍼니 Joo-mo'는 불교무용예술을 결합한 창작안무 '다비'를 선보여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교수는 다비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인간의 원초적인 생로병사를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윤회라는 순환의 고리 속에 자신의 모든 업장을 휴과 불, 바람의 사대 지수화풍에 내주어야 그 업장은 소멸되고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다비'의 철학을 무대에 반영한 작품이다.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비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이 교수는 투철한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을 무대예술로 승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숭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교 예술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불교의 자비와 구도정신 담아 예술의 대중화 기여해 호평 받아

이 교수는 이에 앞서 불교적 소재를 작품화한 '108'로 2013년 '국제 안무가 대회'에서 김기인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이 공연은 외국 기획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미국, 폴란드 등에서 공연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교수가 이렇게 불교적 소재를 작품으로 채택하는데에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그의 성장 배경이 한 몫을 한다. “아버지가 신실한 불자였어요. 누나는 이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출가를 했죠. 저는 초등학교 저

학년 때부터 반야심경 천수경을 외워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을만큼 수행활동을 강요받았어요.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싫었는데 무용을 하면서 전통적 소재를 찾다보니 결국 불교로 돌아가게 되었고 지금은 그 철학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앞으로 이 교수는 다비를 국제 대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그는 “이번 가을 열리는 국제안무가대회에서도 다비를 출품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비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국내외 다양한 무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최우수작품상은 정병인과 노병유의 우리소리 연구회-솃대팀이 수상했다. 이들은 북청사자놀음을 시대에 맞게 각색, 안무해 전통적인 악사 편성과 음악으로 현장성을 높이고, 관객과의 탁월한 소통으로 즐거움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한국예술센터가 주관하고 조계종 후원으로 개최된 제1회 불교무용대전은 ‘대한민국 최대, 대학로 유일의 불교 무용 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경연을 펼쳤다. 하지만 대상과 최우수상 모두 상금은 수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 치러져 불교 공연계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월운 스님, 동국대서 명예박사 학위

8월 19일, 역경사업에 매진한 공로로



(사진 왼쪽부터)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월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 정승석 대학원장

역경불사의 큰 어른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동국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8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5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열고 역경사업에 매진한 공로로 봉선사 조실이자 동국대역경원 명예원장을 맡고 있는 월운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월운스님은 학술 발전뿐 아니라 인류의 문화 창달에 기여한 바가 크고,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이는 데 크게 공헌했으며 후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명예박사학위 수여 사유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연광 스님, 19일 승가교육기금 기탁



광주 중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8월 19일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를 위한 기금 500만원을 조계종 교육원에 기탁했다. 연광 스님은 “승가교육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어르신 여름나기 후원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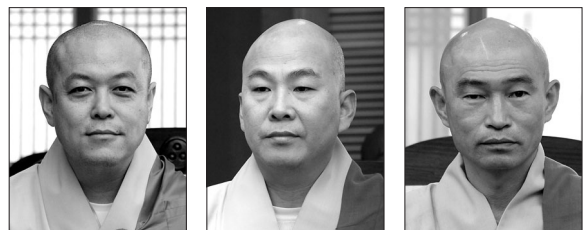


재단법인 호연(이사장 호연 스님)은 8월 7일 서울 노원구청을 방문해 선풍기, 여름이불, 쌀, 모기약 등 물품을 전달했다. 이 물품은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재단법인 호연은 5월부터 70세 이상 남성 독거어르신 후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 후원사업으로 비구니 스님 의료비 지원을 펼치고 있다. (02)948-3929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문화국장 석운, 조사국장 도심 스님 임명

8월 13일 임명식...상임감찰에는 진공 스님



석운 스님, 도심 스님, 진공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3일 문화국장에 석운 스님, 조사국장에 도심 스님, 상임감찰에 진공 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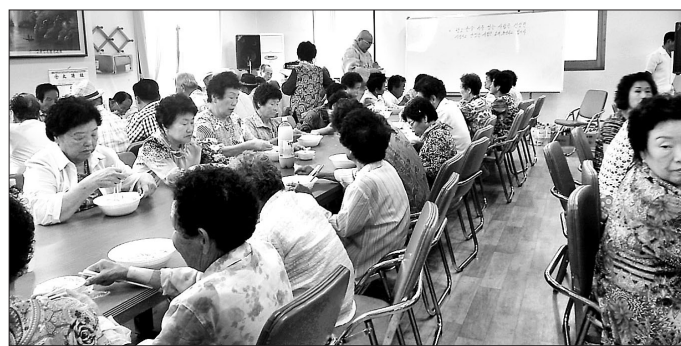
문화국장 석운(石雲)스님은 수진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팔공총림선원, 쌍계총림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영축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하고 총무원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조사국장 도심(道心)스님은 성혜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봉암사 태고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총무원 상임감찰을 역임하고 현재 성불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임감찰 진공(眞空)스님은 범종스님을 은사로 2000년 사미계를 수계했다. 봉암사 태고선원, 쌍계총림선원, 실상사 백장선원, 월정사 만월선원, 해인총림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노덕현 기자

“어르신 건강, 불심으로 챙겨요”

제10회 미륵암 칠월칠석 경로잔치 개최



조동종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은 8월 20일 칠월 칠석을 맞아 남해군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제10회 칠월칠석 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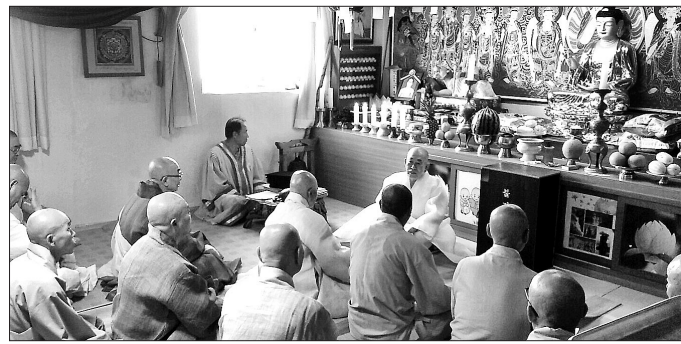
10년동안 꾸준히 경로잔치를 열어 온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칠월칠석을 맞아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무더위를 식히고 마음 편안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에 경로잔치를 열게 됐다”며 “현재 미륵암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다. 완공 후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곳에서 경로잔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운 스님은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불심으로 복지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중도 규합과 교육에 매진하겠다”

대한불교미타종 창종 75주년 기념식 봉행



대한불교미타종(총무원장 권성우)은 8월 18일 서울 휘경동 총무원 대법당에서 ‘창종 75주년 기념식 및 창종조 탄신 100주년 출판기념 회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월정스님, 총무원장 권성우, 교육원장 석진 스님, 법암문도회 대표 영각스님, 포교원장 진표스님 등 종단인원 및 중도 50여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인사를 시작으로 창종조 탄신 100주년 기념 책자인 ‘사바에 뿌린 씨앗’을 창종조사 영전에 봉정하고 그간 종단발전에 공헌한 중도에 대한 표창도 시상했다. 노덕현 기자

권성우 총무원장은 ‘창종조탄신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종단 발전을 위해 종단 재정비를 통한 중도 규합과 교육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7기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왔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문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